

공주시의회 '평생학습 특성화 학습자' 작품 전시

✎ 이병인 기자 | ⓒ 승인 2024.07.03 09:11

'서각 휴' 작품 25점



'평생학습 특성화 학습자' 작품 전시 사진/공주시의회 제공.

[중부매일 이병인 기자] 공주시 평생학습 특성화 학습자들의 작품이 오는 31일까지 공주시의회 시민예술공간에서 전시된다.

이번 전시회에서는 공주시 평생학습 특성화 학습자 '서각 휴' 과정 작품들이 전시된다.

학습자들은 서각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'서각 휴'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.

서각(書刻)은 나무나 돌 등의 재료 위에 글자나 그림을 새겨 넣는 예술 형태로 한국의 전통 예술 중 하나다.

주로 목재를 사용하여 나무 표면에 글자를 조각한 뒤 채색하거나 자연 그대로의 나뭇결을 살려 작품을 완성한다.

임달희 의장은 "서각은 단순히 글씨를 새기는 작업을 넘어, 그 속에 담긴 철학과 감정을 표현하는 깊은 예술적 의미를 지닌다"며 "시민 여러분들께서 작품 감상을 통해 학습자들의 내면과 메시지를 느껴보시기 바란다"고 말했다.



이병인 기자 byung813@jbnews.com